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¹⁾

최정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영 부연구위원

요약

- 조사목적** ▶ 청소년의 시민성 수준과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조사대상** ▶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8,654명
- 조사방법** ▶ 조사원의 학교 방문 및 우편조사
- 조사방법** ▶ 2023년 5~7월
- 조사내용** ▶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참여에 대한 효능감, 청소년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과 도움 수준에 대한 인식 등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년 연구 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청소년의 시민성

표 1 본 연구의 시민성 개념과 구성요소

구분			설명
시민성의 개념			좋은 시민의 역할에 기대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으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의 가치로 구성
좋은 시민의 유형 및 규범	참여적 시민	참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및 실천
		자율	민주주의적 숙의를 위한 지식 습득과 타인의 의견 존중
	정의 지향적 시민	연대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
		평등	모든 사람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 존중
	책임 이행적 시민	사회질서	사회체계의 수용과 신뢰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
		애국	소속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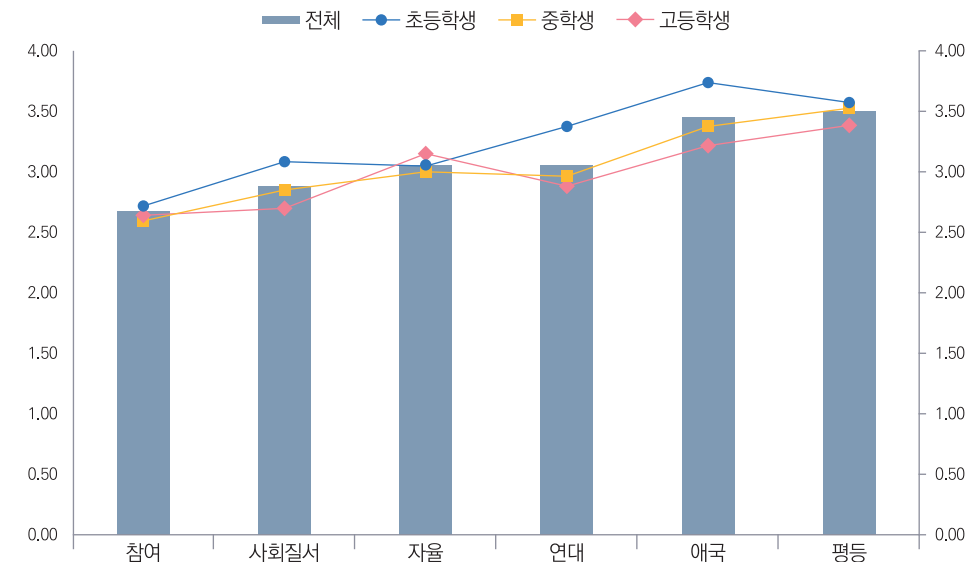
- **[참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음.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며 초·중·고생의 경우 각각 평균 2.68점, 2.57점, 2.62점을 기록해 초등학교생, 고등학교생, 중학생 순으로 점수가 높음
- **[자율]** '민주주의적 숙의를 위한 지식 습득과 타인의 의견 존중'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음.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는데 초·중생의 경우 각각 평균 2.96점, 2.95점을, 고등학교생은 평균 3.09점을 기록함. 고등학교생의 집단 평균만이 3점을 웃돌고 있으므로 절대적 맥락²⁾에서의 수용적 태도는 고등학교생 집단에 한정함
- **[연대]**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음.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는데 초등학교생의 경우 평균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고생의 평균이 각각 2.88점, 2.86점으로 집계됨. 절대적 맥락에서 초등학교생 집단만이 연대의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결과임
- **[평등]** '모든 사람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 존중'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음.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는데 초등학교생의 경우 평균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중학생이 평균 3.45점, 고등학교생이 평균 3.38점을 기록함. 세 집단의 평균 점수가 모두 3점을 크게 웃돌고 있으므로 초·중·고생 모두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해 절대적 맥락에서의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2) 여기서 '절대적 맥락'이란 설문지의 응답 척도에서 긍정적(수용적) 태도에 해당하는 3점을 절단점(cut-off point)으로 사용해 집단 평균을 해석한 것임. 집단 평균이 3점 이상이면 수용적, 3점 미만이면 그렇지 않다고 해석함

■ **[사회질서]** ‘사회체계의 수용과 신뢰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음.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3.03점으로, 중학생 평균 2.79점과 고등학생 평균 2.67점을 웃돌았음. 세 집단 중 초등학교의 평균만이 3점을 웃돌고 있으므로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절대적 맥락에서의 수용적 태도가 초등학교 집단에 한정됨

■ **[애국]** ‘소속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음.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는데 초등학교의 집단 평균은 3.68점으로, 중학생의 3.30점, 고등학생의 3.18점을 모두 웃돌았음. 초·중·고생의 집단 평균이 모두 3점을 웃돌고 있으므로 세 집단 모두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해 절대적 맥락에서의 수용적 태도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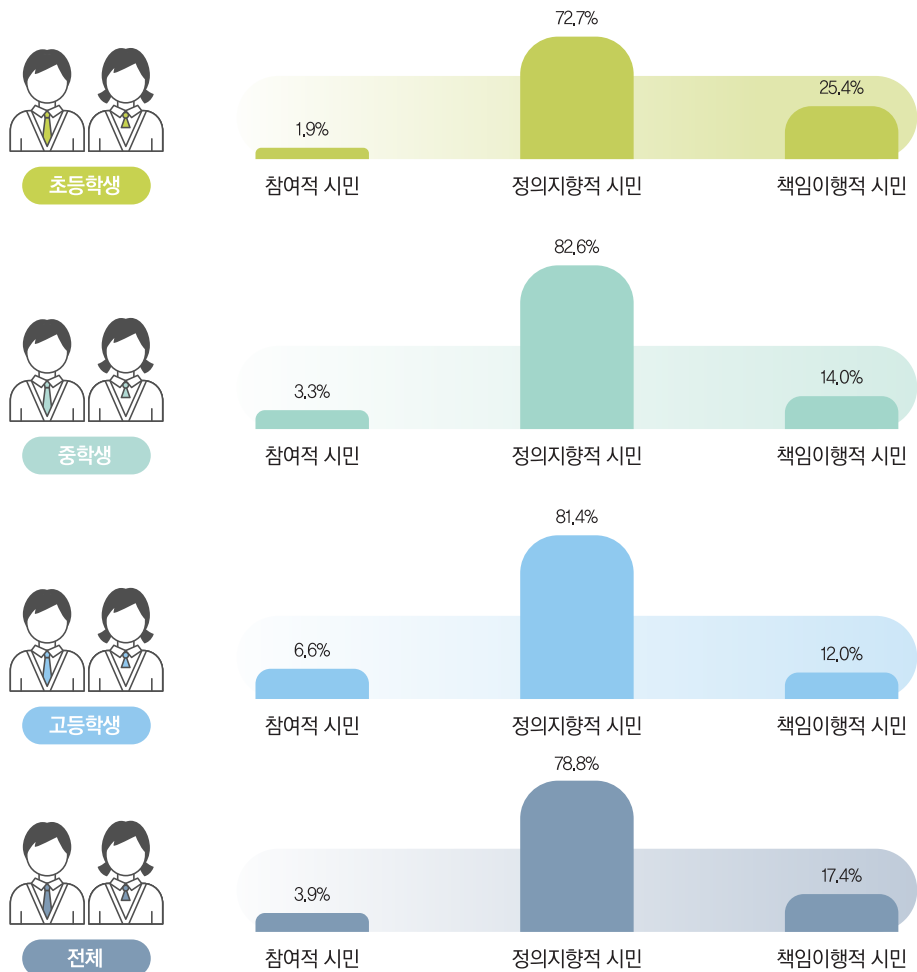
■ **[종합]** 이상의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음. 자율을 제외한 여타 시민적 가치 규범에서 초등학교 집단이 중·고생 집단보다 일관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음. 전자가 후자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말함. 중·고생의 수용적 태도는 전반적으로 낮았고 특히 고등학생의 평균 점수가 대부분의 가치 규범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줌. 이와 더불어 전체 학생집단의 태도 추이를 살펴보면 6개의 가치 규범 중 평등과 애국 등의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 태도는 높지만, 유독 참여에 대한 수용 정도는 낮음. 이는 훗날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생 신분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학교나 지역사회 등)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예: 선거 출마, 투표, 정당 활동, 사회운동 등)에 참여할 의사 또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



참고: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

그림 1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집단 평균

- 또한, 6개의 가치 규범에 대한 개별 응답자의 수용적 태도 점수를 활용해 해당 응답자의 참여적, 정의 지향적, 책임 이행적 성향을 계산하고 이 중 가장 높은 점수가 집계된 성향을 판별했을 때 정의 지향적 시민으로 구분되는 응답자의 비율이 세 집단 공통으로 가장 높았음(그림 2 참조). 초·중·고 집단에서 정의 지향적 시민의 점유 비율은 각각 72.7%, 82.6%, 81.4%에 달함. 반대로 참여적 시민의 점유 비율은 초등학교생의 경우 1.9%,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6.6%에 그쳐 앞서 참여라는 가치 규범에 대해 초·중·고생 집단이 공통으로 보여주었던 낮은 수용적 태도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참여적 시민: 참여와 자율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점수가 제일 높은 유형
- 정의지향적 시민: 연대와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점수가 제일 높은 유형
- 책임이행적 시민: 사회질서와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점수가 제일 높은 유형

그림 2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따른 시민 유형 구분

2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

표 2 본 연구의 정치참여 개념과 유형 구분

구분	설명		
정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		
유형	오프라인	학교 안 활동	교실 및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예: 학급 토론 참여, 학생회 임원 활동 등)
		학교 밖 활동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 밖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예: 정치적 이슈에 관한 부모님과 대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 활동 등)
	온라인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예: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이슈 관련 정보 수집,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이슈 관련 의견 게시 등)

- [오프라인 학교 안] 학교급을 기준으로 볼 때 수업 중 토론으로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초등학생이었음. 이들의 평균은 3.12점으로 중학생의 2.71점, 고등학생의 2.59점을 크게 웃돌았음. 이는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수업 시간 중 정치·사회 이슈를 토론하며 정치참여의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함.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해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은 보기 활동별로 '전혀 한 적 없음'과 '한 지 1년이 넘었음'에 0점, '최근 1년 안에 한 적 있음'에 1점을 부여 후 전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함. 그 결과 초등학생 평균이 3.4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평균은 각각 3.03점, 3.01점을 기록함. 중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내 자치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오프라인 학교 밖]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해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은 보기 활동별로 '전혀 한 적 없음'과 '한 지 1년이 넘었음'에 0점, '최근 1년 안에 한 적 있음'에 1점을 부여 후 전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함. 결과는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 양상과 크게 달랐음. 합산 점수는 최소 0점, 최대 12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초·중·고생의 집단 평균은 각 0.73점, 0.64점, 0.62점으로 모두 1점에도 미치지 못함. 학교 밖에서 친구 또는 가족 등과 국제·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대화 및 토론 등을 통해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 빈도는 고등학생이 평균 1.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중생은 각각 1.72점, 1.70점으로 집계됨. 다만 설문의 응답 척도에서 1점은 '전혀(거의) 하지 않음', 2점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 집단 모두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및 토론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경험은 매우 적음
- [온라인]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 빈도는 고등학생이 평균 1.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중생은 각각 1.40점, 1.43점으로 집계됨
- [종합] [그림 3]은 T점수³⁾를 활용해 초·중·고생 집단별로 어떤 유형의 정치참여 경험이 두드러지고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로 초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치참여 경험은 학교 내 수업 중 토론이었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은 가장 적었음. 반대로 고등학생의 경우 온라인 공간이나 학교 밖 사적

3) 정치참여 경험을 평정하는 데 사용된 응답 척도와 내용이 문항에 따라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 유형별 참여 수준의 평정 결과를 T 점수로 일괄 표준화함

관계망을 매개로 한 정치참여 경험이 가장 활발했지만, 수업 중 토론을 통해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은 가장 저조함. 중학생 집단에서는 유형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았음. 다만 T 점수의 특성(평균: 50점)상 중학생 집단의 정치참여 경험이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50점을 밑돌고 있는 것은 초·중·고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중학생 집단의 정치참여 경험이 학교 안팎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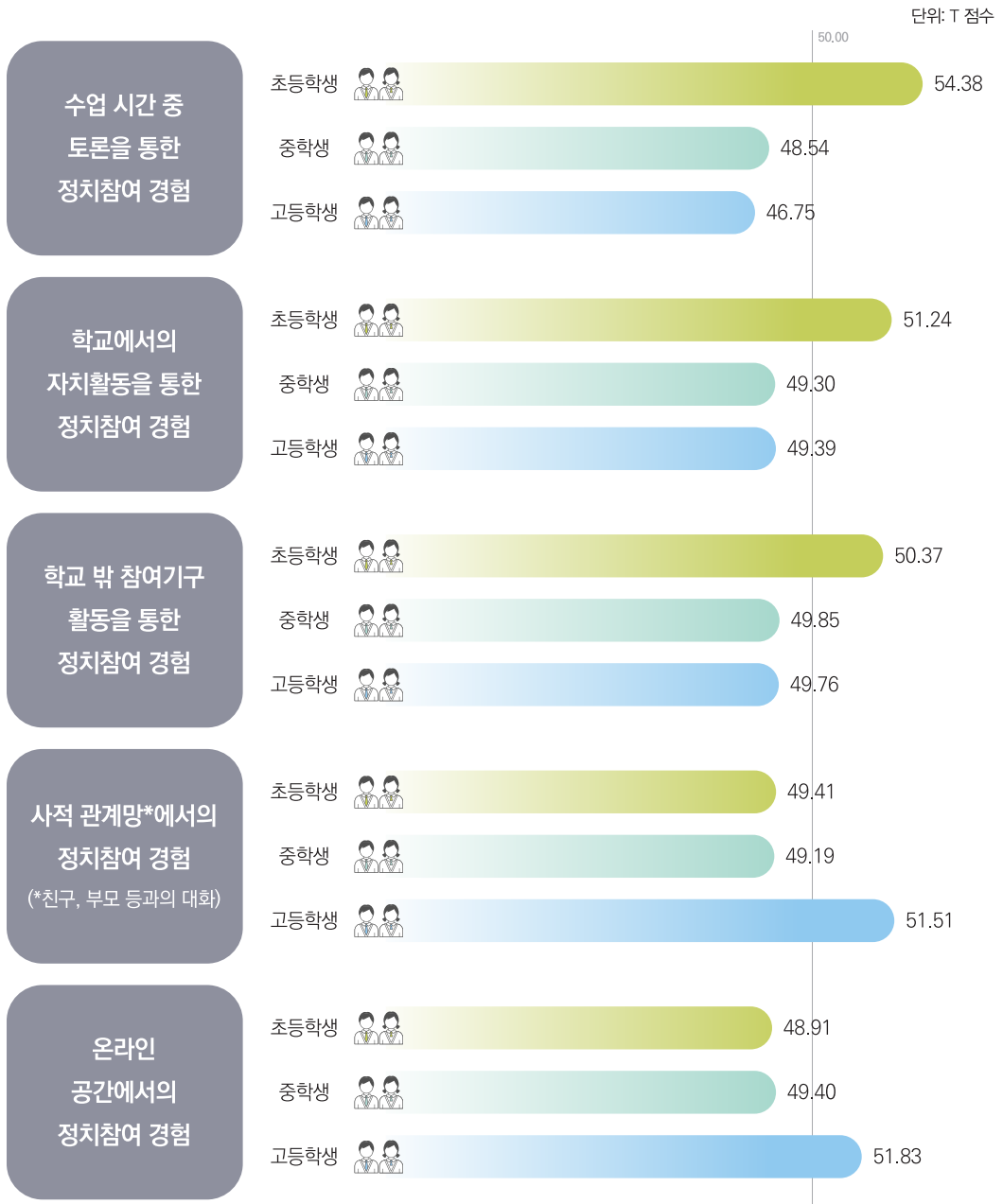


그림 3 정치참여 경험 실태(T 점수 기준)

3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성의 관계

- 학교 고정 효과 모형을 기반으로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예: 인구학적 변인, 정치적 자기 효능감, 정치 관심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치참여 경험이 각각의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의 관계(학교급별)

종속변인	참여			자율			사회질서			연대			평등			애국		
교급 구분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독립변인																		
교실 안 정치참여		+	+			-						+					+	+
교내 정치참여	+	+	+															
학교 밖 정치참여	+	+	+				+		+		+	+						
온라인 정치참여	+	+		+	+			-	-						-			-

주1. A, 초등학생, B, 중학생, C, 고등학생
 주2. +: 정적 상관, -: 부적 상관
 주3. 학교 고정 효과 모델 적용, 통제변수 통제

- [참여]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에 있어 초·중·고생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정치참여 경험은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와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임.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긍정적 효과는 중·고생,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의 긍정적 효과는 초·중생 집단에서만 발견됨
- [자율] 자율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에 있어 정적 상관을 보여준 정치참여 경험은 초·중생의 온라인 정치참여가 유일함. 고등학생의 경우 유일하게 유의한 정치참여 경험은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지만 실제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임
- [사회질서]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함양에 있어서는 정치참여 활동의 유형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확인함. 학교 밖의 다양한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태도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중·고생의 태도 함양에 역효과를 초래함
- [연대] 연대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과 관련해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과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은 고등학생의 태도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함
- [평등]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과 관련해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 유일한 정치참여 경험은 고등학생의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임. 다만, 그 작용 방식은 부적 상관으로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이 높을수록 해당 고등학생의 수용적 태도는 떨어짐
- [애국]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과 관련해 수업 중 토론을 매개로 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만이 중·고생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함

